

4) 촌주 출신의 호족

촌주는 촌락에서 촌정(村政)을 담당하는 재지세력의 대표자였다. 촌주는 우선 촌락문서(村落文書) 작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 촌락문서에 따라 촌주는 촌락 단위의 조(租)·조(調)수취, 역역(力役)동원에 관여하였다. 여기서 역역의 동원은 국가의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촌락문서에 나오는 마전(麻田)·관모답(官謨畓)의 공동경작에도 해당되었다. 그 이외에도 촌주는 비상시에 촌락을 방위하기 위하여 촌민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였다. 이와 같이 촌주는 촌락문서 작성, 조·조수취, 역역동원, 촌락방위 등 촌정 전체를 담당하였다. 결국 촌주는 촌락에서 대민관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촌주는 촌락의 촌정을 담당하면서 이와 동시에 군(郡)·현사(縣司)에 참여하여 이직자(吏職者)와 더불어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나의 군·현사에 참여하는 촌주는 3~4명이었는데, 상(제1)·제2·제3 촌주로 구별되었다.

촌주의 임무와 역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촌주는 국가에서 촌주위답(村主位畓)을 지급받았다. 또한 촌주는 일반 촌민들보다 훨씬 많은 노비와 우마(牛馬)를 소유하여 경작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으로 촌주는 해당 촌락에서 상당한 경제적 실력자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촌주가 조·조수취와 역역동원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고려할 때 사실로 믿어진다. 또한 촌주가 군·현의 행정기구인 군·현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지방사회에서 정치적·군사적 실력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촌주의 세력기반이 촌정의 담당이나 군현행정 참여에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촌주 출신의 호족은 군현 정도의 지역이나 그보다 작은 지역을 지배하는 존재였을 것이다. 따라서 군현을 성(城)으로 부르기도 한 것을 염두에 둘 때, 군·현을 근거지로 하면서 성주(城主)라고 불리는 호족들 중에는 촌주 출신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촌주가 호족이 되었다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사례는 지금까지 별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